

무용의 미적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

박 순 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I. 서론	IV. 내면적 요소로서 영혼의 가치
II. 무용적 환경과 무용미 현상	V. 결론
III. 외면적 요소로서의 신체의 미학적 가치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년간 무용미학 강의를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서 해 오면서 항상 몇 주간은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체험 해 오도록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무용을 하여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용에 대한 미적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 가치관을 점검하여 이론적 접근에 머무는 강의가 아닌, 실제 무용공연 및 무용창작 등 무용 전반의 상황에서 적용되고, 실효성을 가져오는 미적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미적체험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년간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의 대상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머니, 갓 태어난 해맑은 아기들의 웃음 내지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 노년의 주름진 얼굴 및 손 등, 인생의 수고가 담겨진 모습, 무용할 때 흐르는 땀방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인지하였다.

또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

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관계성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용서 하는 일,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편지 및 통화를 하는 일 등에 대하여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진실한 인간미 속에 있음을 알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감동이 서로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적 체험을 한 학생들에게 무용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보니, 앞서 밝혔던 그 미적 체험이 무용미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용을 하는 이유 및 목적, 무용미 형성을 위한 준비사항 등에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 첫째, 무용에 대한 특별한 목적의식의 결여.(무용이 단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무용에 대한 외관적 미의 집중 성향.(무용수 및 무용동작의 아름다움에 집중).
- 셋째, 무용의 역할, 즉 사회와의 관계성 및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 부족.(무용표현이 애매 하고 난해하여 잘 전달되지 않음을 인식).
- 넷째, 무용 및 무용계의 발전 및 미래에 대한 사명감 부족(무용이나 무용계의 현 상황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 및 의지가 부족함) 등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며 살아간다. 무용 또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무용 감상을 통하여 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무용창작을 할 때 창작자가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기에서 지적된 네 가지의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무용수들에게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톨스토이는 예술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마음속으로부터 표현하고 싶다는 내적인 욕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톨스토이. 이철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p.200.). 또한 예술이 감염력을 갖게 되는 정도의 대소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 첫째, 전해지는 감정이 독창적이냐 어머니냐에 따라서,
- 둘째,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확실하냐 어머니냐에 따라서,
- 셋째, 예술가의 성실성, 즉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예술가 자신이 체험하는 힘이 크냐,

작으나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였다(톨스토이, 상계서, p.199.).

무용수들이 일상적으로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을 많이 체험하면서 무용을 통하여 자신이나 관객에게 감동을 느끼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톨스토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용 구성요소의 내·외면적 미적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적 가치관의 변화를 위하여 내·외면적 요소 중 무용적 환경에 대한 인지, 외면적 요소에 대한 인체의 미학적 가치의 분석, 내면적 요소로서의 영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무용수들이 표현에 대한 내적 욕구를 일으키고 분명한 표현방식의 정립과 독창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되는 무용예술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문헌 및 논문, 학회지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로써,

첫째,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무용 전공생들이 무용하는 동기 및 목적의 부재 현상과 창작시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등의 현상은 무용을 한 동기나 교육을 받아온 배경, 지도자 및 기타 인과관계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환경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를 무용적 환경이라 규정하고 이를 무용미의 현상에 접근시켜 연구한다.

둘째, 무용을 위하여 대체로 장신(長身), 다이어트, 성형수술등 외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현상이 많다. 이에 무용이 추구해야 할 외면적 요소 중 신체의 본질적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하여 연구한다.

셋째,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는 고로 존재한다' 고 하였듯이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몸은 내면적 요소로서의 자유생명 즉, 영혼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과 기능적 교육에 집중되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독창성, 표현성 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면적 요소로서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내용을 통하여 무용의 미적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미적 가치관은

첫째, “무용”, “무용예술”이라는 용어설정에 있어서 대학에서 무용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에 무용예술이라는 용어보다 무용이라는 용어로서 전문성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제약을 두었고 인용문 또는 미래 지향적으로 “무용예술”이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였다.

둘째, 미적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 배경이 대학에서 무용미학 강의를 10여년 이상 하면서 대학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미의식, 미적 체험 등 미지식의 상황판단에 따라서 전개하였다. 연구 방향은 장래 무용수 및 무용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학생중심에 의한 미적 체험, 미적 판단, 미적 적용 등에 의해 연구하였다.

셋째, 무용미 형성을 위해서 연구해야 할 내용은 많겠으나 특별히 다년간 동일한 현상의 미적 판단 내용 중 무용인이 무용인으로서 영향력을 입는 환경에 대하여 무용미 형성에 본질적으로 핵심적 요인이 되는 신체와 영혼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무용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 영혼의 요인).

4. 선행연구의 분석

본 연구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논문 및 학술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미(1995, 무용학회 논문집.)는 「무용미의 현상학적 분석연구」로 무용의 표현 매체인 신체에 대한 의미체계를 구축, 무용예술에 부여된 미의 가치를 분석하여 외면적 요소의 신체문화와 내면적 요소의 연습이 유대적 관계성을 갖는다고 하여 신체에 대한 이해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연습을 통한 무용미의 형성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김성미(1997)는 「헤겔미학의 관점에서 본 무용미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무용미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풍부한 철학적 배경과 의미를 토대로 하여 관념론적 연구방법으로 인식될 때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무용미의 내면적 구조의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갖고 연구한 결과 무용에서의 참된 정신활동은 현상과 대립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스스

로 현상하는 것을 본질적 규정으로서 함축하는 것이라고 보고 헤겔미학의 근본 명제인 미 일반의 규정 즉, 미는 이념의 감각적 현현이다 라는 헤겔의 철학에서 답을 얻었다. 즉, 무용의 가치도 정신의식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정용화(2000)는 「무용미의 내면적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무용미의 미학적 접근을 위하여 무용의 보편적인 외면적 구조와 내면적 구조를 연구하여 무용미의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 무용미의 가치를 확대하려 하였는데 주로 고바야시 신지의 내·외면적 구조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김인숙(1997. 무용학회 논문집. 강원대학교.)은 「무용미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움직임으로 중심으로」 하였는데 무용미의 일반적인 특성을 연구함으로 무용미의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미의 정의, 예술의 정의, 무용예술과 미의 관계 등을 분석하면서 신체와 움직임의 관한 무용학자간의 두 가지의 논쟁을 분류하였다.

첫째, 무용이 예술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용수의 신체가 아니라 움직임의 논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무용의 근거에는 표현성을 갖춘 신체가 중요하며 신체를 포함한 움직임이 무용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관점이다. 김인숙은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신체의 특성에 있어 잠재적 가능성으로서의 상상의 신체를 말하며 무용의 표현매체로서 신체는 주체가 되는 동시에 객체가 되고 신체를 통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엔 인간의 신체는 자연미에 해당하며 신체는 생명미가 있다고 보았다. 움직임에 대한 상황에 따른 범주로서 생활과 관련된 움직임, 제스처어등을 분석했고 움직임에 두 가지 동작형태는 모으는 것과 흩뿌리는 것으로 보았다. 형식적 움직임은 그 자체로 감상되어야하고 움직임의 유형은 각 사람의 경험, 성격, 정서 및 정신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적 체험은 향수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양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 본질을 포함한 총명한 경험의 세계를 감상을 통해서 이룬다고 보았다.

김귀자(1985)의 「무용미 연구는 내면적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용미 연구는 내면적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형식과 내용의 조화에 대한 것으로 무용미를 정의 규정하였다.

한윤희(1987. 용인대학교 논문집.)는 「무용의 본질과 무용미의 구조적 접근」에서 무용예술은 종합예술이기에 특정한 요소만으로는 완벽한 무용을 표현할 수 없음

로 무용의 본질과 무용미의 구조적 접근을 통하여 표현과 운동이 있는 무용미가 시간적 공간적 예술의 조화를 통해서 무용미를 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의 여러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구조적 접근도 시도하였다.

정숙희, 조성실(1995. 한국체육철학회. 한양대학교.)은 「플라톤 철학과 무용미 연구」에서 플라톤의 사상에서 예술적 영역을 구분하고 발제된 내용을 예술과 예술미로 구분하여 구분된 내용을 무용의 내면적 감각과 외면적 표현으로서의 특징적 요소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예술의 모든 관심이 도덕에 포함되며 도덕적 원리가 예술에 적용됨으로 예술가들도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플라톤의 감각적 해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해석이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자체의 미와 존재로서의 미를 이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 본연의 행동을 예술영역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플라톤의 가장 정신적이고 이성적이며 이데아와 물질적인 감각적인 현상계를 인식하여 몸과 영혼의 연대성을 선명하게 증명해주었다. 그의 철학에 있어서 「파이돈」에서 선천적 영혼이 죽지 않는 것, 영혼은 단순하기 때문에 불멸해야 한다는 것, 영혼불멸은 영혼의 본질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는 그 개념 그대로 생명자체에 두었다.

이 외에도 예술과 미의 견해, 무용미의 요인, 신체의 올바른 순화 등으로 무용을 연결 시켜 주었다. 결국 심신의 이원화와 인간의 본질을 철학적 측면에서 그 방향을 모색하여 무용의 표현을 현 세대의 예술로서 새롭게 미학적으로 접근시켰다.

이상의 선행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보면, 80년대 중반에 쓰여진 김귀자의 논문은 무용미를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한윤희는 무용의 본질과 표현과 운동이라는 구조적 접근을 통하여 무용미가 시·공간의 조화를 통해서 발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두 논문은 무용미를 외면적으로 발현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90년대 중·후반에 쓰여진 논문들을 살펴보면 김성미는 내면적 요소로서의 신체에 대한 의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의 가치를 분석하여 연습을 통한 무용미의 발현과 풍부한 철학적 배경과 의미는 관념론적 연구를 통하여 현상과의 대립이 아닌 정신의식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인숙 또한 무용의 미는 표현성을 갖춘 상상의 인체이자 생명미가 있고 자연미가 있는, 각 사람의 경험과 성격, 정서 및 정신적 조건에 따라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용미의 내면적 구조가 더욱 강조되는데 소재적, 조형적, 기능적 요소로 세분화 하여 무용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무용의 정의 및 본질에 입각한 내·외면적 구조의 분석이었으며 신체에 대한 분석, 표현에 대한 분석, 움직임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미적 사상에 대한 분석 등의 연구를 하였다. 그 중 정숙희, 조성실의 플라톤 철학과 무용미 연구에 있어서 영혼불멸의 사상이 깃든 「파이든」에서의 영혼에 대한 본질을 분석한 것과 김성미의 무용미의 가치를 현상과의 대립이 아닌 정신의식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 김인숙은 표현성을 갖춘 신체를 강조하고 주체와 객체로서의 상상의 신체, 역동적 이미지를 위한 신체는 자연미에 해당하는 생명미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움직임의 유형은 각 사람의 경험, 성격, 정서 및 정신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인간의 생명본질을 포함한 총명한 경험의 세계를 표현하고 감상한다고 보았다.

이로서 2000년대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하는 내면적 미적 가치관에 대한 변화의 추구하고 유사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무용수의 몸에 대한 가치인식, 무용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내면적 요소의 근원적인 영혼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데 있다.

II. 무용적 환경과 무용미 현상

우리나라는 현재 영, 유아 성장기의 유아원 및 유치원등을 통해서 율동이라는 개념으로 무용의 첫 경험을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 진학 중심의 초·중·고등교육의 목표 전환으로 말미암아 독립적 무용 교과목이 아닌 체육의 일환으로의 무용, 특별활동으로의 무용, 취미활동으로의 무용, 대학진학을 위한 무용 등으로 교육적 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전공,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자들이 많은 교육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의 무용전공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나 목적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무용교육은 예술무용가 즉, 공연무용가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면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자나 학습자 모두 상호간의 인성 및 인격형성을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본질 및 목표에 해당하는 교육의 필요성(적어도 한 인격체가 나의 가족이라고 보는 관점, 또는 “나”라고 보는 관점)이 당연한 것임에도 현재 무용교육, 무용 예술계를 망라한 무용적 환경은 구체적 실현 방안 및 목적이 약함을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에서 자·타의적 동기로 무용을 좋아하는 인구들이 형성되어 무용의 왕성한 활동 영역의 확대는 인간, 삶과 절대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무용의 사회적 현상은 동·서양사를 막론하고 선사시대에는 보여줌이 아닌 함께 공유하는 제의적인 무용으로, 역사시대에 들어와 왕권주의 및 봉건주의에 의한 특정계급 및 목적을 위한 귀족적 무용과 서민적 무용의 출연으로서 보여줌의 무용과 공유의 무용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근대사까지 이르며 무용교육이 시작이 되고 오늘날과 같은 무용예술을 낳게 된 것이다. 사실상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활성화된 지 1세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짧은 역사적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인간과 인간의 삶과는 펠레야 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된 것이다.

작은 모래알들이 해변가의 면적을 채워 우리들의 휴식처를 마련해 주고 여유로움이라는 영혼의 미를 낳게 하듯, 무용에 대한 다양한 분석, 비판, 사색등이 모여져서 무용미가 형성되고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됨을 생각 할 때, 영·유아에서 초·중·고등과정을 일반 인문학교, 예술 중고등학교, 학원, 개인레슨으로 다양한 지도를 받는 무용후배들의 교육적 환경은 다양한 무용미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지난 수 십년 동안에 한국무용예술계에 문화 예술적 전개양상을 조명하여 볼 때, 양적인 측면의 증가에 따른 질적인 측면의 발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그에 따른 최근의 추세를 반영했는데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지원금에 힘입어 공연의 횟수는 증가한 반면 새로운 창작 작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무용예술을 감상하는 관객층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용예술진흥을 위한 지원금은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규준체계와 시스템이 부재함 또,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양성 및 배출에 소홀했음을 나타냈다.¹⁾

또한 장애숙(2002)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무용교육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무용수, 무용교육자, 이론가, 안무가 등을 동시에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전문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주요요인은 무용예술 교육과정의 전개과정에서의 안일함과 목적 및 실용성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²⁾

이상의 내용을 통해 질적 발전보다 양적인 발전으로, 전문적 교육과정 및 교육형태보다는 비전문성을 초래하여 무용의 전반적인 안일함과 목적 및 실용성의 부재현상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용 교과서 및 무용시간의 부재현상에 이어 급진적인 대학의 무용과의 활성화, 무용전문서적 및 연구논문 등 전문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다양한 무용 환경적 현상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이 짙다고 보여 지는 무용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무용과 학습자, 교육자와 학습자, 다양한 환경과 학습자등의 관계성 등을 통하여 비유기적이고 합목적적이지 못한 인간관계의 의식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무용미를 형성되는 것이다.

무용미에 대해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안된다. 무용미를 추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미가 어떻게 의식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아름답다라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의 의식현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현상을 형성하는 미의 내용에는 개별적 성격요소와 보편적 성격요소가 존재한다.³⁾

고바야시 신지는, 개별적 성격요소는 내용, 형식, 형태, 색채 등 다양하며 미를 형성하는 기본 소재라고 하였다. 또한 미의 형성을 의식하는 과정의 요소와 소재의 개별적 요소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미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며, 개별적 요소가 다양함의 개별성을 가진 요소이기에 보편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의 본질을 추구하는데에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편적 성격요소는 미를 추구하기 위한 기

1) 김이경(2006)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따른 무용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무용학전공 박사과정 학위논문 p 2.

2) 김이경 상계서 p. 3(장애아의 무용창작능력 향상을 위한 무용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인용).

3) 고바야시 신지, 김정자 (역). 무용미학. 현대 미학사. p. 24.

본적인 조건요소이며 다양한 미의 대상에서도 그 개별성에 좌우되지 않고 미를 추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하였다.⁴⁾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무용의 미적표현은 입시, 경쟁, 비교, 눈치, 두려움으로 인해 억제, 왜곡되어 있는 현상을 낳기 때문에 개별적 성격요소의 표현도 완만하지 못한 성향이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 성격요소는 독특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유과별, 학교별, 장르별, 지도자 별 등).

철학자 이남인이 자신의 학문철학을 예를 들어 “분과학문과의 소통이 결여된 철학은 공허와 자폐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철학과 소통이 결여된 분과학문은 맹목적인 독단의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한 것을 통해 송중건은 현재 우리나라 무용학 연구는 왜소하다고 하였다(송중건. 무용이론의 실제. 한학문화. pp 2~3). 또한 피셔(Ernst Otto Fischer)는 분명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보다 윗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완전한 것이기를 바라므로 고립되는 개인으로가 아닌, 안일하려고 아니하는 측면에서 온갖 제동과 제약을 가해오는 환경을 극복해 가며 보다 충실한 생활, 보다 넓고도 의미 있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하였다.

철학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하는 가치야말로 자기보전적 만족(안제승, 안병주. 무용학개론. 신원문화사. p. 20.) (Satisfactory of self-Preservarion)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러한 만족은 항상 자기한정(Self-Determination)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Society)과의 밀접한 맥락을 유지해 가는 확대된 여건 아래서의 가치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다(안제승 등. 상계서 p. 21.).

무용의 사회화가 공연 및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현상학적으로는 적극적인 사회화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열려 있는 의식과 담대한 구현을 이루어야 한다. 마치 한 장의 직물을 짤 때 한 올, 한 올의 섬세한 교차가 전체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듯이 무용미는 공연자의 작품과 동작, 외모, 조명, 음악, 의상의 조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작은 삶, 작은 마음, 작은 생각, 판단 하나하나가 미적인 추구를 향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바야시 신지. 전계서. pp.24~25.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오늘날의 예술은 자가 당착에 빠져 있다고 보았으며 위협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진 에드워드 비이스,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pp. 11~12.). 톨스토이는

현대사회에는 작품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받는 막대한 보수와 거기에 따라 확립된 예술가의 직업성, 둘째가 예술 비평, 셋째가 예술학교라고 하였다. 부유계급을 위한 예술이 형성되어 그 부류들에게 쾌감을 주는 예술이기에, 예술이 직업화 되어 성실성이 일부 상실되었기에 비평을 하는 사람이 보통사람이나 솔직한 사람이 비평하는 게 아니고, 학문이 있는 사람, 즉 마음이 부패하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하기에 곤란하다.

는 점을 들어 지적하였다.⁵⁾

이러한 견해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용적 환경에도 있을 수 있는 요인임을 상기시켜서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책,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고, 보고, 먹듯이 친근하고 믿음직한 무용미 형성을 위해 환경 형성의 구체적 요소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용의 환경적 요인의 섬세한 관심은 음식물을 먹을 때 해로운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듯 한 관심일 것이다. 환경은 인간의 생명과 삶의 행복을 충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바야시 신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실의 생명은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각종 조건에 속박을 받으며 생활해 온 생명이라고 하였다.

역사적인 영향과 복잡한 사회조건에 속박 당하며 거기에 맞추어 온 생명은 인간 본연의 소박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직면한 현상에만 반응하는 현실적인 생명을 형성해 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미를 발견하거나 창조 할 수 있는 생명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소박한 자유로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송이 꽃을,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 듯, 그 생명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본질적 미를 지켜주면서 그 대상을 사랑하듯 무용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 순수성과 소박함을 갖고 자유로운 생명의 위대함을 존중함으로 무용미의 가치는 향상 될 것이다.

5) 톨스토이, 이철(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pp. 153~154.

III. 외면적 요소로서의 신체의 미학적 가치

오늘날 무용 또는 무용인에 대한 대표적 인식중의 하나가 예쁘다, 아름답다 또는 날씬하다, 맵시가 있다, 균형이 잡혔다, 라는 외관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 무용을 하는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무용에 대한 동일한 인식이요, 관심이라고 보여 진다.

교육환경에서도 이왕이면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날씬한 사람을 선호하는 성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용의 미래지향적이고 광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외모, 외관 중심의 무용관은 무용예술이라는 보여지는 측면에서의 소극적 인식에 불과하다고 본다. 무용을 역사적 현상,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 교육적 현상에서 본다면 무용에서의 신체의 인식은 광의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얼짱’, ‘몸짱’ 등의 신조어를 보면서 인간이 ‘인격체’로서의 몸이 아닌 살과 뼈로 된 몸 자체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른다. — 중략 — 아무리 상업적인 시대라 해도 아직 우리는 몸을 상품화하는 것에 길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본질적으로 몸이란 그렇게 흥정해서 값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⁶⁾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를 삼으므로 그들의 육체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고(창 6:1~3) 하였다. 이는 곧 부패한 사람들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몸에서 시작되고 몸으로 살며 표현한다. 몸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이다. 몸과 생명과 삶은 결코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이종록. 상계서. p.18).

모든 무용하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해 봄으로써 무용에서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였을 때 그 아픔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을

6) 이종록. 성서로 읽는 디지털 시대의 몸 이야기, 책세상. pp. 8~9.

것이다.

무용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주관적 관점이 객관적 관점으로서의 몸으로 돌아가 무용에서의 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새김질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용에서 결코 아름다운 신체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망각, 또는 무시하거나 무시된 상태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종은 긴 역사를 통하여서도, 어느 사회에서도 진리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일례, 서양의 중세사에 있어서 무용의 암흑시기에 여성의 춤을 악하다고 봄).

고대 그리스 문명 중 하나는 신체문화였다.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은 심신일원론이다.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인간인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 문화는 고대 그리스의 물락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리고 심신일원론에서 심신이원론으로 변화하였다. 인간의 마음과 몸이 다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많은 종교는 이러한 심신이원론을 믿고 있었으나 그 생각은 언제부터인지 마음을 육체보다 우위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혼은 불멸한 것이나 육체는 식욕, 성욕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인해 불결하고 죄악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마음과 혼을 위한 노력과 연구등은 많이 하였으나 육체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등,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였다.

몸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죄악이므로 신체의 美를 강조하는 것도 죄악시되었던 것이다 -중략- 무용의 폭락은 심신이원론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⁷⁾

몸을 지닌 인간은 평생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과 기능으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무용은 몸이 본질이고, 수단이고 목적이므로 온전히 쓰임을 받는 특수한 분야이다.

무용은 인간의 신체가 갖는 움직임을 기본매체로 이용하며 움직임의 측면에서 춤은 보다 집중적으로, 기능적으로 신체의 근육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지휘자, 연주자도 사용하지만 이들의 신체의 움직임은 예술 활동의 본질적 목표가 아닌 것이다.

무용의 경우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움직임 자체가 무용예술 활동의 목표가 된다. 존 마틴은(춤 평론가) 춤꾼이 갖는 신체의 움직임을 연주자나 연극배우가 갖는

7) 오화진편저. 무용문화사. 금광. pp. 100~101.

신체의 움직임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면서 무용예술의 성격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다운, 본원적인 예술로 규정하고 있다.⁸⁾

존 마틴의 무용예술에 대한 정의는 무용에서 신체의 미학적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소중한 규정이라고 본다. 앞서 밝혔듯이 “몸짱”, “얼짱”, “몸값” 등의 현대 신조어의 등장이나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등, 외모 지향주의에 치우쳐 있는 듯 한 현상이 심신이원론의 신체의 가치관에 접근하여 가고 있다.

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적, 권위적 사상 등에 의한 심신이원론이 신체를 보는 관점이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에 무용인들은 미래적인 안목으로 심신일원론의 미적 가치관을 정립,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IV. 내면적 요소로서 영혼

일반적으로 무용에 있어서 내면적 요소 중 영혼과 유사성을 가지는 단어는 주로 마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마음의 정의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다른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위치,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 하는 일이라고 한다.⁹⁾ 또 무용계에서는 마음과 유사한 말로 혼 또는 심혈, 영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사도라 텅컨에 의한 현대무용의 태동을 통하여 중심적 힘이 되었던 것이 형식미나 방법론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무용의 본질적 변화의 외침이 있었는데. 곧 영감(inspiration, 신통한 생각, 명안, 고취, 감화, 암시, 시사, 감화, 신성)의 움직임의 시작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내면적 구조는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환경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음으로 인해 온전히 표현해 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8) 김태원, 춤의 미학과 교육, 현대미술사. pp.185~186.

9) <http://krdic.naver.com/> naver국어사전.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영혼의 정의를 살펴보면

영혼(靈魂, soul)은 有機體일반의 생명원리로서 상정(想定)되는 것, 또는 단순히 영(靈)이라고도 한다.

19C이후의 실증적 심리학의 발달에 따라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 의미로는 부정되고 있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초관념의 하나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영혼관념의 발생에 관해 추측한 사람은 영국의 타일러인데 원시인은 잠자코 있는 동안 꿈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마음대로 행동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신체와는 별도로 신체로부터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상상하였으며 죽음은 이 부분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인간이외의 생물, 무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보는 애니미즘도 이에 속한다(魂: 마음의 작용을 지배함). 또한 우리말의 <넋>이라는 관념이 추상적인 생명원리를 가리키는 동시에 영혼관념은 유동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우나 생명령(生命靈)이라고 불리는 생명을 주고 있는 원리와 자유령(自由靈)이라고 하는 신체를 자유로이 떠날 수 있고 신체가 죽은 후에도 존속 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¹⁰⁾

간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영혼이란

- ㉠ 인간의 생활원칙
- ㉡ 순전히 신체적인 부분과 대조를 이룬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 ㉢ 인간 특성의 정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였다(김종주, 상계서, pp123~124.).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靈)이심을 나타냈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1~4)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인간의 내·외면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말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

10) 동아원세세계대박과 사전21권, 동아출판사. pp.187~188.

는 진리에 의한 영혼(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권면하는 사랑의 말 또는 마음과 같은 것)의 내면의 심오한 곳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작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용미를 형성하는 내면적 구조를 성립시키는 요소로는 직접적으로 무용을 표현하는 대상이 되는 소재적 요소, 무용을 형성하는 표현 소재를 제공하는 조형적 요소, 무용형성의 활동력인 기능적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고바야시 신지, 전계서. pp 48~49). 이 가운데 무용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생명적 요소를 인간의 생각, 의지, 사상, 정신 등으로 볼 수 있다.

종교학적으로는 영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앞서 밝혔듯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자 말씀인 반면에, 학문적으로는 정신을 영혼으로 동일하게 보아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지적 세계를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프로이드가 그의 작업과 저서들에서 영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본질과 구조, 발달과 특성에 대해서, 또한 그 영혼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꿈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김종주, 김아영 옮김, 프로이드와 인간의 영혼. 하나의학사. p. 23.). 상기내용에서 영혼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마치 종교학적, 학문학적 양면성을 의미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인간은 행위와 영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삶을 누린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무용의 인식은 무용미 형성에 있어서 외면적 요소의 하나인 신체의 움직임, 테크닉(기술), 나아가 동작 또는 춤사위로 무용이 대부분 형성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의 연구와 훈련에 몰두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물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무용을 연마하지만, 안 보이는 내면의 세계 즉 영혼보다 보여지는 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혼이 인간의 생각, 행위를 주장하고 조화를 이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무용이 영혼과 신체의 균형적 조화를 잃어 심신 이원론적인 현상을 낳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동향 중 하나로 영성의 재유행을 꼽을 수 있다. 영성의 유행이라함은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도를 추구하는 양상은 캘리포니아의 최근 뉴에이지 종파나 동양고대 신앙까지 고루 아우르고 있다고 했으며 예술과 영성의 연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김유리, 오운성. 예술과 영혼. IVP. p. 39.).

고바야시 신지는 무용미학의 저서에서 많은 부분을 “자유로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밝혔던 여러 유형의 “영혼”에 대한 접근을 무용미학적 접근에서 보면 현실적 생명에는 제2차적인 생명과 근원적인 생명이 공존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생명은 성격적인 변화를 준 외부적인 작용요소로 풍토, 사회, 역사, 민족 등 네 가지 조건요소를 들 수 있으며 제2차적 생명은 근원적인 생명이 외부로부터 각종 작용에 의해 서서히 2차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생긴 생명이라고 보았다.¹¹⁾

또한 근원적 생명은 순수한 성격, 자유성의 성격을 강조하여, 현실적 환경에서의 억제적 구속요인을 배제한 자유로움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무용학도들이 무용을 할 때, 자유하지 못하는 내면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다. 적어도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은 연습 및 학습, 공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보여줌” “나타냄”의 인식 및 의식이 생활화 되어야 하는 학문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긴장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긴장과 유사하게 사용된 다른 용어에는 각성(arousal), 불안(anxiety) 그리고 신경과민 등이 있다.

각성이 성적인 뜻을 갖고, 불안과 신경과민이 부정적인 뜻을 갖는 반면에 강도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무용공연을 방해하거나 용이하게 하든지- 경험될 수 있다고 한다. 불행히 긴장은 또한 근육이완, 호흡곤란, 그리고 근육운동의 협조의 상실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 될 수 있다.¹²⁾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은 내면 즉, 영혼으로부터의 욕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감은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감이 높은 무용수들은 공연과 무용에 편안한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신감이 부족한 무용수들은 분노를 느끼게 되어 초라한 공연을 한다(짐 테일러 등, 상계서 p. 63).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무용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무용수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교사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무용과 관계된 생각을 하도록 도와야하며 그들의 춤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11) 고바야시 신지, 전계서, p. 53.

12) 짐 테일러 · 쉐시 테일러 공저/박종길(역), 들불, 무용심리학. p. 81.

무용수들에게는 가끔 그들 자신이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는데 기대이상으로 실패하는 무용수와 놀라울 만큼 성공하는 무용수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 무용수들을 구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은 바로 동기이다.

동기(Motivation)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상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 지루함이나 피로,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이다. 즉, 동기란 무용수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공연과 관련된 유일한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³⁾

대체적으로 동기가 부족한 무용수들은 클라나나 리허설에 거의 열의가 없으며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요구된 연습만을 한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수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 강수진은 평생에 걸친 하루 10시간 이상의 연습, 1년에 250컬레의 닳아진 토슈즈의 사용 등으로 연습이 호흡 그 자체이고 존재의 이유가 될 정도로 연습하였다. 구도자보다도 치열한 그녀의 몸짓의 반복은 결국 자신의 발레를 세계 최고의 품격으로 올렸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도 자신의 실력에 대해 “나에게 천부적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0.3%정도이고 나머지 99.7%는 오직 연습량에 있다고 하였다.¹⁴⁾

또 2008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대량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선수들도 하루 10시간 이상의 연습을 반복했다고 한다.

폭발물 같은 일순간의 위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이 긴 시간 오래도록 발전된 반복에는 서늘하게 존재한다. 충분한 시간과 인내의 과정을 두고 조금씩 쌓이고 응고되고 농축된 반복의 축적에는 영혼을 올리고 깊은 감격을 뺏 속 깊이 길어내는 전인적인 힘이 고이기 마련이다.

무용을 배우는 과정, 무용공연을 하는 과정, 오디션, 콩쿠르 등을 통하여 가족, 동료, 선후배, 지도자, 관객 등 많은 사람과 환경을 접하게 된다. 또 2차적 생명처럼 태어난 배경, 부모님, 가족들의 성향, 경제적 형편, 성장방법, 교육방법 및 배경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상이함 속에서 성장된다. 진정 각자가 순전하게 갖고 있는 내면의 자유함 곧 영혼의 자유함을 갖고 자신과 자신의 능력과 표현세계를 마

13) 짐 테일러 등 전게서, p.39.

14) 김진수. 다이올핀이 주는 지혜, 새암, pp. 34~35.

음껏 표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얼마나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의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무용인들은 내면의 집, 곧 영혼의 집에 들어가서 부자유스럽고, 불완전하게 하는 요인들을 분명한 동기, 자신감, 반복되는 연습 등으로 제어하므로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무용예술의 진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무용의 미적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을 논제로 현재의 무용적 환경과 무용미 형성과의 관계, 무용미 형성에서 외면적 요소로서의 신체의 미학적 가치, 내면적 요소로서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첫째, 영·유아부터 초·중·고등, 대학에 이르도록 주어진 무용과 관계되는 모든 환경에는 인간 즉, 인격이라는 생명의 본질성의 인식 및 중요성을 바탕으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환경의 추구, 실용성과 다양성 및 독창성을 중심으로 한 무용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적 환경의 유기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 교육자와 학습자, 사회와 다양한 인과관계의 환경을 통하여 무용의 미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용에서 신체는 도구요, 목적이고 본질이다. 즉, 인격체라는 도구요,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이다. 외관 중심의 심신 이원론적 신체적 가치관이 인간미 중심의 심신일원론적인 가치관으로 「인간미의 회복을(삭제)」 무용의 어떤 현상이나 발전, 기획보다도 우선시해야 한다. 즉,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고찰된 바와 같이 심신 이원론에서 심신일원론으로의 무용미의 추구를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 미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용은 무용수의 생각과 의지로 노력하여 외면적, 기능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바야시 신지가 지적한 것 처럼 순수한 성격과 자유성을 강조하여 현실적 구속요인을 배제한 자유로움에 의한 표현을 하여야 한다고 했

다. 이는 무용수가 분명한 동기와 목적에 의해 충분한 연습을 함으로 구속요인인 동기부족, 자신감 결여, 불안 등의 구속요소를 극복한 영혼의 춤으로 진정한 미를 실현 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더불어 무용인의 주변 환경 및 인과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인 자유생명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영혼과의 만남, 지도, 격려가 미적 가치관이 높은 무용 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일반적 미적 체험과 무용적 미적 체험과의 상이한 체험의식은 곧 인간본연의 자세와 사회적 환경이 많은 괴리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증거한다. 또한 “몸짱”, “얼짱” 등 신체의 상품화 현상을 낳는 외관 중심의 현실은 실추되어 있는 인간 본연의 위대한 인격과 존엄성을 무용계에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무용을 연마하여 무용예술로서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재정과 체력과 온 인격의 헌신을 동반하는 열정적 무용적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예술에 비하여 대중과의 관계가 소원하여지고 있는 현상을 직시 할 때 그간의 무용계의 진취적 노력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의 무용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무용수들이 현 시점의 미적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르네위그는 예술과 영혼의 서문에서 우리가 영혼의 표현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조형예술은 하나의 비생산적 유희가 되고 만다고 하며 현대 예술을 부정하자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침체한 상태로 안주하지 말자는 것이며 현대 예술이 생명있는 모든 것의 법칙에 따라서 그 자체를 超克(초극)하도록 고무하자고 하였다.¹⁵⁾

■참고문헌

- 김종주, 김아영 역(2000). 프로이드와 인간의 영혼.
 김진수(2009). 다이돌핀이 주는 지혜. 새암.
 김태원(2004). 춤의 미학과 교육 현대미학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저)(1984). 동아출판사.
 문영(2000). 무용심리학. 보경.

15) 르네위그/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미술선서. p.12.

- 송종건(2002). 무용이론의 실제. 한학문화.
- 안제승. 방병극 공저(1992). 무용학개론. 신원문화사.
- 오화진 편저(1994). 무용문화사.
- 육완순(1987). 노베르의 편지. 금광.
- 이종록(2006). 성서로 읽는 디지털 시대의 몸 이야기. 책 세상.
- 한창욱(2005).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새론 북스.
- 가브리엘 로스, 박선영(역)(2005). 리즘.
- 고바야시 신지, 김경자(역)(2000). 현대미학사.
- 르네위그. 김화영(역)(1991). 예술과 영혼. 열화당. 미술선서26.
- 멜빈 레이더, 버트럼 제섭. 김광명 (역)(2004). 까치.
- 진 에드워드 비이스(1994).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침반.
- 톨스토이. 이철(역)(2005). 예술이란 무엇인가. 범우사.
- 힐러리 브랜드. 아드리느 채플린. 김유리. 오윤성(2006). 예술과 영혼. IVP.
- 김귀자(1985). 무용미의 연구 : 내면적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김성미(1997). 헤겔미학의 관점에서 본 무용미의 본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 김이경(2006).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따른 무용 전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무용학전공 박사학위.
- 정용화(2000). 무용미의 내면적 구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김성미(1995). 무용미의 현상학적 분석연구, 무용학회 논문집 Vol. 7 No. -
- 김인숙(1997). 무용미의 본질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 논문집 Vol. 4 No. -
- 정숙희, 조성실(1996).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 한윤희(1987). 무용의 본질과 무용미의 구조적 접근,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 3 No. -

논문투고일 2009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9일
 심사완료일 11월 30일

Abstract**Changing Necessity: About Dancer's Sense of Esthetic Value**

Park Soon Ja
Prof. Dance Dep.
S.M.W.U

Since infancy to youth, when beginning season of dancing educate, person's are faced with a lot of different social environments.

Thereupon, peoples are formed esthetic sense of values as a dancer, in compliance with relationship, between coach with learner, and social contact with many different other persons, social environment change.

At the diversity esthetic sense of values, humanity and personality are change to good way, some time has been situated many other mental conflict.

Every environmental of dance should be formed by human -that's are tool, subject and substance- that's why dignity of human's life take it seriously.

But. Nowaday's facts are can not progress ethnic sense value as a forming for best humaneness that reasons are matter of fact; kind of entrance examination, selfishness, etc.. So. by the essential study for soul(that is internal fact of dance) and body(that is external fact of dance) -both of thing's are structure fact for dance of beauty- want a be recovery for dance's esthetic sense of values.

Personification in opposition to physical commodities, in other words, recovery for identity theoretical sense of values.

that meanings are the Sprit that who make deci.

keywords: dance aesthetic(무용미), esthetic value(미적가치관), environmental theory of dance(무용환경론), Soul(영혼), identity theory(심신일원론).